

般若波羅密多心經

觀自在菩薩은 般若波羅密多 行을 하실 때、五蘊은 모두 空이라고 照見하시고 一切의 苦厄을 度하셨느니라。舍利子여 色이 空과 다르지 않으며、空은 色과 다르지 않으니라。受·想·行·識·또한 이와 같으니라。舍利子여 이 諸法은 空相이 아니라。不生으로서 不滅、不垢로서 不淨、不增으로서 不減이니라。是故로 空 가운데 色도 없고、受·想·行·識없고 眼·耳·鼻·舌·身·意도 없고、色·聲·香·味·觸·法도 없고、眼界도 없고、乃至 意識界도 없노라。無明도 없고、또 無明이 다하는 일도 없고 老死도 없고 老死의 다하는 일도 없으며、苦·集·滅·道도 없으니라。智도 없고、또한 得도 없느니라。無所得인 까닭에 菩提薩埵 般若波羅密多에 依하는 마음의 罣礙없다。罣礙가 없는 까닭에 無有恐怖이니라。顛倒夢想을 遠離하여 究竟涅槃하도다。三世의 諸佛은 般若波羅密多에 依한 까닭으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얻었니라。故로 알지어다。般若波羅密多是 大神呪이며、곧 大明呪이며、곧 無上呪이며、無等等呪이니라。能히 一切의 苦를 除하여、眞實이면서 헛되지 않으니라。故로 般若波羅蜜多의 呪를 說하노라。卽、呪를 說하여 가로되 羯諦 羯諦 波羅羯諦 波羅僧羯諦 菩提薩娑訶。